

# ‘Information Management’지에 나타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이슈와 동향

##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ssues and Trends Traced from ARMA’s ‘Information Management’

윤여현 (Yeo Hyun Yoon)\*, 이보람 (Bo Ram Lee)\*\*  
최동운 (Dong Woon Choi)\*\*\*, 최윤진 (Yun Jin Choi)\*\*\*\*  
임진희 (Jin Hee Yim)\*\*\*\*\*

### 초 록

국제 기록관리자 및 행정가협회(ARMA International)는 기록정보관리 원칙에 대한 교육과 출판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 그 관심사와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분야의 이슈와 고민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협회의 기관지인 *Information Management*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분석함으로써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주요 관심사와 이슈의 특징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루어진 주제 중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정보거버넌스, 이디스커버리, 전자의료기록,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간분야 기록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해외의 경험과 사례들은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ABSTRACT

ARMA International has been leading education and publication in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ndustry worldwide. This study aimed to trace issues and trends in international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field through analysing the articles brought up in *Information Management*, which is ARMA International’s official magazine. Further analysis was also conducted on noticeable subjects from the magazine in order to realize where we currently are. Scanning the contents of *Information Management* would definitely provide with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Korean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records management communities.

키워드: 국제 기록관리자 및 행정가협회, Information Management, 기업기록관리, 정보거버넌스, 이디스커버리, 클라우드, 데이터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전자의료기록  
ARMA International, Information Management, private sector RIM, information governance, e-discovery, cloud, data and information security, privacy, EHR

- 
- \* 충남대학교병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yeohyun@hotmail.com) (제1저자)  
\*\* 한국탐사저널리듬센터 뉴스타파 기자(proarchivist@naver.com) (공동저자)  
\*\*\* 한국국제협력단 기록물관리전문요원(a009803965@koica.go.kr) (공동저자)  
\*\*\*\* 한국수출입은행 기록물관리전문요원(yunjin.choiee@koreaexim.go.kr) (공동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인간과기억아카이브’(hmarchives.com) 아키비스트  
(yimjhkr@mj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6년 11월 28일 ■ 최초심사일자: 2016년 12월 5일 ■ 게재확정일자: 2016년 12월 12일  
■ 정보관리학회지, 33(4), 245-267, 201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4.245]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규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 분야는 제도적 기반과 실제 업무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해당 기관의 정보관리를 총괄하고 생애주기에 입각한 효율적 기록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록관이 각급 기관에 설치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었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등에도 꾸준히 기록연구사 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왔다.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해 기록물 관리와 활용에 필수적인 분류체계를 갖추었고 모든 기록물에 보존연한과 처리 방법이 부여됨으로써 생산 시부터 적절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공기록의 속성을 보호하고 후대를 위해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어졌다고 하겠다. 반면 이와 같은 공공분야의 발전에 비해 민간 분야의 기록관리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문제제기나 방향 제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대상영역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민간영역, 특히 기업에서 우선시 하는 경제논리를 충족시킬 기록관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아직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구조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정부의 운영도 민간과의 협력을 빼고는 논할 수 없는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주지의 사실임을 생각할 때

당대의 사회상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민간 기록물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업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파악하여 관련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는 캐나다의 거시평가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관계가 내포하는 의미와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겠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록물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정보는 현대의 조직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조직의 효율적, 경제적, 효과적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정보로서 기록의 위상을 정립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 졌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정보의 활용 가치 때문이다. 또한 설명책임이나 법규준수를 위해 증거로서의 기록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에서 행위와 업무에 대한 법적 증거로서 기록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조직 운영에 있어 필수적 요건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증거로서의 기록을 소홀히 관리하는 것이 조직에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가져오는지는 이미 잘 알려진 다음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이닉스 사는 2011년 5월 미국 램버스 사의 특허권소송에서 승소하여 11년간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는데 법원에 의하면 램버스 사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관련한 9만~18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료를 파괴했고 이러한 주기적 자료파기가 불법행위로 간주된 것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SK 하이닉스, 2012). 삼성전자는 2012년 Apple사와의 법정 소송에서

10억 4900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러한 판결에는 내부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작용하였다(Austin, 2012). 코오롱과 듀퐁의 소송에서는 2014년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긴 했으나 2011년에 있었던 판결에서는 코오롱이 17,811건의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져 의도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증거를 파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중처벌을 받은바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침묵을 유지하는 등의 행동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의제자백'이라는 영미법의 특징에 의한 것인데(김동환, 2012.9.6) 무역 대상국의 법적 문화적 요소를 알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들이기도 하다. 이처럼 증거로서의 기록 정보를 적법하게 보존 관리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확대된 경영 맥락을 생각할 때 국내의 기업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임이 분명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요건들이 제도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의 윤리 및 투명성이 강조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이윤 창출과 직접적 연관을 맺게 되는 현 사회의 특징을 생각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통해 설명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도외시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민간 영역의 기록관리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요구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국내 기록학계의 관심과 고찰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의

경험과 이론을 축적하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오랜 시간동안 고민해 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민간 기록관리 담론을 확대시키고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 유의한 초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동시에 국내 기록관리계가 기록과 정보를 둘러싼 생산 및 관리 환경의 전반적 변화에 대한 통찰을 도모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 또한 제공할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정보 관리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 협회 중 하나인 국제 기록관리자 및 행정가 협회(ARMA International, 이하 ARMA)의 기관지 *Information Management*를 분석하여 해외 기록정보 관리 분야의 경향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기록관리의 정착과 발전, 나아가 기록관리계 전반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ARMA는 30개국 2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제 비영리 전문가 협회로 기록 정보 관리원칙에 대한 교육과 출판을 선도하고 있다(ARMA International, 2016a). 1956년 미국 기록 관리 협회(American Records Management Association: ARMA)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현용 및 준현용 기록관리 전문가들을 위한 협회로 시작한 이 단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영역을 확장하여 왔다. 먼저 미국에 한정했던 협회의 지리적 범주를 전 세계로 확장함으로써 명칭 또한 국제 기록관리자 및 행정가 협회(Association of Records Managers and Administrators International: ARMA

International)로 바꾸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0, p. 76). 다루는 대상 분야에 대해서도 '현용 및 준현용 기록관리(Records Management)' 분야에 한정했던 것에서 탈피해 현재는 '기록정보 관리(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RIM)', 나아가 '정보거버넌스(Information Governance)'를 내세우며 정보와 관련한 다방면의 협력을 강조하는 통합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회원 구성 또한 정부, 법조계, 의료계, 금융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코드매니저, 법무담당관, IT 전문가, 아키비스트, 사서, 컨설턴트 등 여러 직군의 전문가들을 포괄하게 되었다(ARMA International, 2016a). 이와 같은 통합적 기록정보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지향은 ARMA에서 매년 주최하는 컨퍼런스 & 엑스포의 주제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전자기록관리, 법적 문제, 규제 준수, e-디스커버리, 기록 및 정보관리 원칙, 기술 관련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현용 및 준현용 기록물관리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ARMA International, 2016b).

이와 같은 ARMA의 주요 관심사와 활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기관지 *Information Management*(이하 IM)이다. 2016년으로 발간 50주년을 맞은 이 간행물은 1967년 1월부터 1998년 말까지는 *Records Management Quarterly*, 1999년 1월부터 2008년 말까지는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이라는 제호로 발행되었다. 1999년 명칭 변경은 '기록물'만을 관리하는 것에서 모든 형태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장된 해당 직업군 내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의 첫 번째 호 편집자의 말(From the Editors)에서는 문서관리 시스템, 지식관리, 업무 절차 고도화, 전략적 정보 서비스, 데이터 마이닝, 정보 검색 시스템 등을 정보전문가들이 '기록물'을 넘어서 다루어야 하는 분야로 들고, 이러한 영역의 확장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Gable, 1999, p. 3).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은 2009년 1월을 기점으로 기존 명칭에서 'Journal'을 뺀 *Information Management*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내용 또한 최신 동향의 소개 위주로 개편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저널'은 학술적인 글을 게재하는 간행물이라는 인상이 강하다는 전제하에 협회 회원들과 그 밖의 정보 관리 전문가들을 위해 좀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행물을 만들자는 방향성에 기존 명칭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Wiler, 2012).

IM은 이러한 연혁 자체에서 기록정보관리 영역의 변화를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듯이 해당 분야의 주목할 만한 실무적 이슈들과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따라서 해외 기록정보관리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고민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분야의 최신 현황과 사례를 자세히 담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간된다는 점에서 흐름과 추이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며, ARMA International 웹사이트를 통해서 최신호까지 별도의 접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분석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RMA International의 기관지 IM을 먼

밀히 분석하고 주요 쟁점과 그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해당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1.3 선행연구

국내 기록학계에서 기업의 기록정보관리 동향 또는 지형 변화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최근 정보거버넌스, 이디스커버리, 프리디티브 코딩,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록정보의 생산 및 관리 환경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설문원(2015)은 정보거버넌스의 도입배경과 주요 개념 소개와 함께 실무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특히 정보 생산 환경과 규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정보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승범, 김일아, 유준상은 기록관리의 시각에서 이디스커버리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였다. 김승범(2015)의 연구에서는 이디스커버리의 성장세에 따라 기록학계와 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이디스커버리 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우리나라 기록관리계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일아(2016)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제 소송 및 분쟁에 대비하여 소송 절차의 핵심인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ARMA International의 *Information Management*에 게재된 내용

을 중심으로 이디스커버리에 대응하는 미국 기업의 기록관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록관리 관점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유준상(2016)은 이디스커버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기록 검색도구로서 기계학습을 이용한 프리디티브 코딩의 도입과 기록관리를 통한 대응전략을 모색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적용에 관한 기록학계의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 이생동(2014)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모델을 모색하였다. 특히 데이터 전송을 통한 이관방식이 초래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임지훈, 김은총, 방기영, 이유진, 김용(2014)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운용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할 경우 저비용 고효율, 확장성, 상호운용성 등의 장점을 통해 기존 시스템이 안고 있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실무와 관련한 지형의 변화와는 차이가 있지만 기록학계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설문원(2012)은 기록 분류와 관련하여 수행된 국내 연구를 분석하였다. 국내 학술검색 서비스인 DBPIA를 검색하여 주제에 부합하는 35편의 논문을 선별하여 해당 논문들의 특징과 한계를 정리하였으며, 향후의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강순애(2013)는 기록관리학의 역사를 다룬 논문 31편을 DBPIA 검색을 통해 추출하여 분야별, 연도별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기록관리 역사 분야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박희진(2014)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캐나다 기록관리학 전문학술지인 *Archivaria*에 실린 7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 및 주제영역 키워드 분포에 대한 정량 분석과 내용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우리나라 기록관리학계의 연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손혜인과 남영준(2016)은 기록관리학 학술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조사하여 저자와 주제분야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기록관리 연구의 추이를 살펴본 바 있다.

## 2. 연구절차 및 방법

### 2.1 조사 범주 설정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2월부터 2016년 11/12월까지 8년에 걸쳐 발간된 IM 총 48호를 분석하는 것으로 조사 범주를 설정하였다. 2009년 이후 발간된 호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기록정보 분야의 기술 및 환경 변화 속도를 생각할 때 최신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점과 연구의 제한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 1/2월호를 기점으로 기관지의 형태와 구조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이 시점부터 IM의 형태는 최신 트렌드와 뉴스를 정리하는 'UPFRONT'를 전면 배치하고, 'FEATURES'와 'SPOTLIGHTS' 섹션에서 기록정보관리의 원칙과 실무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기본 구성을 갖추었다. 해당 간행물의 전신인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이 학술지로서의 성격에

가까웠던 것에 반해 *Information Management*로 명칭을 바꾸면서부터는 잡지(magazine)를 표방하면서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실무 원칙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본 연구의 맥락에서 이 시점이 유의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IM의 섹션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기록정보 분야의 이슈와 동향을 다루고 있는 'UPFRONT' 섹션에 게재된 기사들이다. 'UPFRONT'는 간행물 전체 분량의 약 1/4에서 1/3에 해당하는 13~15페이지를 차지하며 평균 18개 정도의 기사가 수록된다. '뉴스, 동향, 그리고 분석(News, Trends, and Analysis)'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섹션인 만큼 미국과 캐나다를 위주로 유럽, 아시아 각국, 그리고 그 외 지역 기록정보 관리 분야의 동향과 소식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실무자들이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해당 섹션의 기사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다루어진 주제들 중 우리나라 기록 정보관리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현황을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IM에 실린 광고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현안을 유추할 수 있는 추가적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IM에는 기록정보 분야와 관련된 각종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데 해당지가 기록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군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광고를 통해서 이 분야의 실질적인 수

요를 읽을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기록정보 관리 분야의 해외 커뮤니티에는 어떠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업계의 동향을 예측해 보는 효과도 추구하였다.

## 2.2 분석절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ARMA International 웹사이트<sup>1)</sup>의 링크를 통해 IM 각 호의 pdf 파일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일이 올라와 있지 않거나 링크가 깨져있는 호가 다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해당 호에 대해서는 편집부에 이메일을 통해 직접 연락하여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 대상을 확보한 후 'UPFRONT' 섹션에 게재된 총 987개의 기사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

석 결과를 기록한 분석표의 항목은 발행 연월, 페이지, 섹션구분, 원본에 기재된 카테고리, 대표 주제명, 기사제목,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으며 내용 중에 다루어진 특기할 만한 사실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표 작성의 핵심은 각 기사를 주제별로 구분하는 것이었는데 'UPFRONT'에 실린 모든 기사에는 ARMA International 측에서 부여한 하나의 카테고리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분류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르게 표기되었지만 사실상 같은 주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카테고리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유사 카테고리 로 분류된 기사들을 <표 1>과 같이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였다. <표 1>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UPFRONT' 기사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카테

<표 1> 주제와 원본 표기 카테고리

주제	원본 표기 카테고리
클라우드	Cloud, Cloud Computing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Data Security
전자의료기록	EHR, EHRs, E-Health Records, Health Records
모바일 기기	Mobile, Mobile Devices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Cyber Crime
정보공개	FOI, FOIA, Open Records, Open Government
정부기록물	Government Records, Federal Records
데이터 보안	Data Security, Data Protection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 E-Discovery Fact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Technology
디지털 보존	Digital Preservation, Data Preservation
저장소	E-Storage, Storage
정보 접근	E-Access, Info Access
웹	Web, Internet

1) <http://content.arma.org/IMM/online/InformationManagement>

고리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편집장(Editor in chief) Vicki Wiler에게 해당 카테고리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았다(Wiler, 2016). 또한 원본에 표기된 카테고리 중 연구(Study), 설문조사(Survey), 동향(Trends), 표준(Standards), 법규(Legal), 판례(Court case) 등 주제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6개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기사의 내용을 분석해 적합한 주제로 재분류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44개의 주제를 식별하였고, 987개의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한 후 각 주제가 다루어진 횟수를 연도별로, 전체 기간으로 합산함으로써 연도별 빈출 주제와 전체 기간 중 빈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록정보 분야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배경에서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들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점에 따라 하나 이상의 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기사도 존재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러한 제한점은 분석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류의 일관성을 최대한 추구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였다. IM측의 카테고리 부여가 다른 기사들과 명백히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주제로 재분류하여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고의 경우에도 조사 범주에 속하는 각 호에 게재된 모든 광고를 분석표 형태로 정리하였다. 분석표의 항목은 발행 연월, 광고주, 광고 내용, 구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매 호의 커버를 제외한 마지막 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인덱스를 통해 광고 수와 광고주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광고하고 있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지면의 내용 뿐 아니라 해당 업

체의 홈페이지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광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사 내용만이 아닌 모든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는 IM의 pdf 버전을 입수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전체버전은 ARMA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편집부에 이메일을 통해 문의한 결과 ARMA측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광고 분석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행된 분량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기간 중에서도 2012년 7/8월호 및 11/12월호, 2016년 5/6월호는 전체버전이 존재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248개의 광고가 분석대상으로 도출되었다.

### 3. 통계로 살펴본 이슈와 동향

#### 3.1 주제의 출현 빈도와 주요 내용

전반적인 주제의 분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지난 8년 간 기록정보 분야의 주요 관심사가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모바일 기기 등 새로운 정보 생산 및 관리 환경과 이메일, 전자의료기록 등 전자형태의 기록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정보 보안 등의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률적 문제나 공공 영역의 기록물 관리 정책 및 공개에 관한 관심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각 주제들이 8년간 총 987개의 기사를 통해 다루어진 횟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주제별 출현 횟수와 비율

구분	다루어진 횟수와 전체 기사 중 차지하는 비율
100회 이상	프라이버시(155회, 16%), 정보보안(126회, 13%)
70~99회	이디스커버리(91회, 9%), 사이버보안(80회, 8%), 정부기록물(74회, 7%)
50~69회	클라우드(61회, 6%)
30~49회	전자의료기록(47회, 5%), 정보공개(46회, 5%), 아카이브즈(44회, 4%), 이메일(35회, 4%), 정보기술(32회, 3%)
10~29회	소셜미디어(22회, 2%), 모바일 기기(18회, 2%), 정보거버넌스(17회, 2%), 전자기록물(15회, 2%), 웹(15회, 2%), 기록정보관리(10회, 1%)
10회 미만	자연친화(8회) 등 27개

위의 결과를 통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프라이버시, 즉 개인정보 보호였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나 정책 소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미국 각 주의 사례가 다루어졌으며 캐나다, EU,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호주, 스위스, 인도, 중국, 레바논, 러시아, 네덜란드 등의 사례도 소개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세계적인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동안 미국의 각 주들과 캐나다, EU 등지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법규가 제·개정되었고, 인터넷 상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해당 주제가 자주 다루어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버시라는 주제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제목에 'privacy'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 또한 각각 전자의료기록, 빅데이터,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정보거버넌스, 위협관리 등으로 분류된

13개에 달하여서, 새로운 정보관리 및 이용 환경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슈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고려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보 보안과 사이버 보안 등 기록정보의 보안과 관련한 주제도 전체 기사 중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과 정보 보안을 하나의 주제로 묶을 경우 해당되는 기사의 수가 총 206회에 달해 155회를 기록한 프라이버시보다 오히려 더 많이 다루어진 셈이 된다. 기록정보의 보안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정책 등에 대한 소개와 데이터 및 정보 유출 사고 소개 및 원인 분석 등이 주를 이룬다. 미 연방통상위원회의 레드플래그 규칙(Red Flags rule)<sup>2)</sup>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나(IM 2010 July/August, p. 19; 2010 September/October, p. 19; 2012 July/August, p. 18), 트위터가 사용자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혐의(IM 2011 May/June, p. 9) 등 시의성 있는 내용들도 다루어졌다. 또한 데이터 보안 담당자들의 인식조사 결과, 보안과 관련한 기업들의 대비 현황과 인식에 관한 설문

2)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신원도용을 방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계획 및 정책을 명문화하도록 한 규정임.

조사 결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다. 매년 정보 유출 사고 사례가 빼놓지 않고 소개되고 있는 한편 보안에 대한 무관심이나 인식부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도 동시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정보 보안의 현실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디스커버리는 우리나라에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개념이지만 IM에서 회자된 빈도와 횟수를 통해 그 중요성과 시의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디스커버리는 전자증거개시제도, 즉 소송당사자간 전자적 자료를 개시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관련기사 또한 법원의 판결 내용 및 소송관련 논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미국 내에서 이디스커버리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개별기업들이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전략적 정보관리 방법, 이디스커버리 관련 각종 원칙 및 가이드라인, 이디스커버리를 위한 도구 및 방법론 등 이디스커버리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와 관련한 미국 외 여러 나라의 상황 및 반응도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등 이디스커버리가 법제화된 국가들과의 무역을 위해서 이디스커버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한 2016년 기사에서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해당 제도가 발달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으로 중국과 한국을 꼽기도 하였다(IM 2016 January/February, p. 8).

정부기록물에 대한 소식도 총 74회에 걸쳐 다루어져 모든 주제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 기록관리 정책 및 제도관련 도입 또는 개정, 공공기록

의 대국민 서비스 관련 사항, 공공기록물의 분류, 폐기, 디지털화 등 기록관리 현황 등에 대한 소식 등이다. 정부기록물 관련 소식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상 독자층에 공공영역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공공 분야의 정책 또는 제도 변화가 결과적으로 민간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장점, 비용과 효율성, 취약한 부분과 우려되는 문제들,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서비스의 형태 등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는 차세대 컴퓨팅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확장일로에 있는 분야인 만큼 IM에서는 영국, 캐나다, EU, 싱가포르, 아일랜드, 태국, 인도, 중국, 벨기에 등 세계 각국의 클라우드 시장 현황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다루어진 내용에 의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민간 뿐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도 도입 움직임을 보일 만큼 편의성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보안 문제를 선결해야 하며 이디스커버리나 저작권 등 관련 제도 및 규정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전자의료기록의 경우에는 정부의 확산 의지를 보여주는 관련 정책과 그에 따른 사용 확대 현황 소개를 필두로 그에 따르는 데이터 유출 및 프라이버시 문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움직임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의료기록에 대한 의료인 및 환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 전자의료기록 소프트웨어와 같은 관리 도구 등도 소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소셜미디어, 모바일 기기, 웹, 정보기술 등 달라진 기록 정보 생산환경에 대한 기사와 이메일, 전자기록물 등 주목해야 할 정보 형태, 정보공개 및 정보거버넌스 등 정보의 관리 및 공개 체계와 관련한 기사 등이 다루어졌다.

### 3.2 통계를 통해 살펴본 이슈의 흐름

IM의 'UPFRONT'는 새로운 소식과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 주목적인 섹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주제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주요 이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연도별로 다루어진 주제들과 그 횟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다루어진 주제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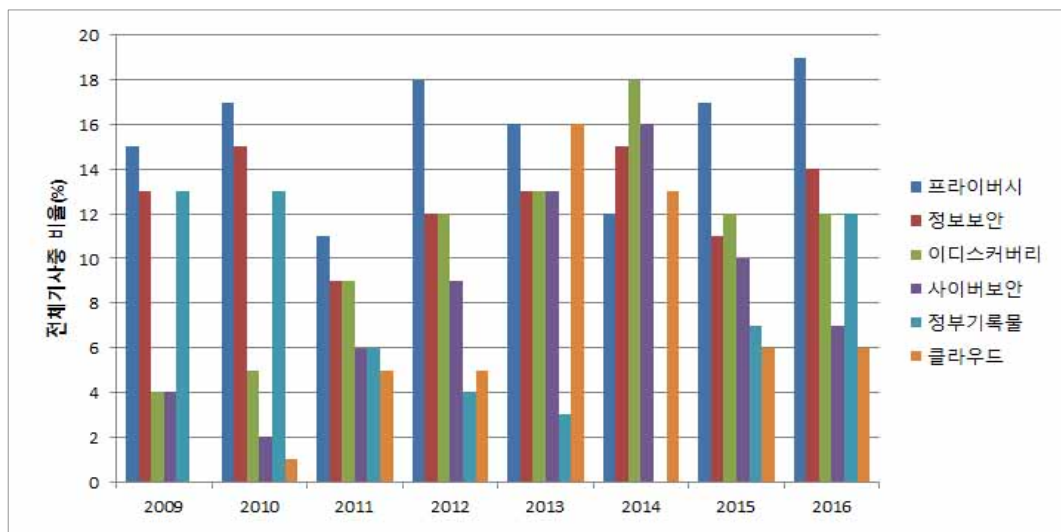
연도	기사 수 (주제 수)	다루어진 주제와 횟수
2016	125 (20개)	프라이버시(24), 정보보안(17), 정부기록물(15), 이디스커버리(15), 사이버보안(9), 클라우드(8), 정보거버넌스(6), 이메일(5), 정보공개(4), 전자의료기록(3), 전자기록물(3), 기록정보관리(3), 모바일 기기(2), 규제준수(2), 직무 개발(2), 보존관리(2), 저장소(2), 사업지속성(1), 디지털 보존(1), 정보기술(1)
2015	109 (23개)	프라이버시(19), 이디스커버리(13), 정보 보안(12), 사이버보안(11), 정부기록물(8), 클라우드(6), 모바일 기기(6), 정보기술(5), 정보공개(4), 정보거버넌스(4), 전자의료기록(4), BYOD(2), 이메일(2), 보존관리(2), 기록정보관리(2), 위험관리(2), 빅데이터(1), 저작권(1), 법원 기록물(1), 전자상거래(1), 지적재산(1), 생산성(1), 소셜미디어(1)
2014	114 (18개)	이디스커버리(20), 사이버보안(18), 정보 보안(17), 클라우드(15), 프라이버시(14), 모바일 기기(5), 정보거버넌스(4), 저작권(3), 정보기술(3), 디지털 보존(3), 웹(3), BYOD(2), 소셜미디어(2), 규제준수(1), 전자의료기록(1), 기록정보관리(1), 위험관리(1), 보존(1)
2013	116 (21개)	클라우드(18), 프라이버시(18), 사이버보안(15), 전자의료기록(15), 정보보안(15), 이디스커버리(7), 모바일 기기(5), 정부기록물(4), 빅데이터(3), 아카이브즈(2), 전자기록물(2), 이메일(2), 정보 기술(2), 기업정보관리(1), 정보공개(1), 자연친화(1), 정보거버넌스(1), HIPAA(1), 이미지화(1), 위험관리(1), 웹(1)
2012	130 (25개)	프라이버시(23), 정보보안(16), 사이버보안(12), 이디스커버리(10), 정보공개(10), 클라우드(7), 전자의료기록(7), 아카이브즈(6), 정보기술(6), 정부기록물(5), 소셜미디어(5), 전자기록물(4), 규제준수(3), 소비자 기록(2), 이메일(2), 정보거버넌스(2), 저장소(2), 빅데이터(1), 검열(1), 법원 기록물(1), 디지털도서관(1), 정보접근(1), 보존(1), 위험관리(1), 웹(1)
2011	124 (27개)	프라이버시(14), 이디스커버리(11), 정보공개(11), 정보보안(11), 전자의료기록(9), 사이버보안(8), 정부기록물(7), 소셜미디어(7), 클라우드(6), 아카이브즈(5), 자연친화(5), 전자기록물(4), 이메일(4), 웹(4), 소비자 기록(3), 법원 기록물(2), 정보기술(2), 주정부 기록물(2), 검열(1), 저작권(1), 정보 접근(1), HIPAA(1), 메타데이터(1), 보존(1), 보존관리(1), 기록정보관리(1), 저장소(1)
2010	133 (22개)	프라이버시(23), 정보보안(20), 정부기록물(17), 아카이브즈(14), 정보공개(13), 이메일(7), 소셜 미디어(6), 이디스커버리(6), 규제준수(6), 정보기술(4), 사이버보안(2), 전자의료기록(2), 자연친화(2), 웹(2), 클라우드(1), 협업(1), 디지털 도서관(1), 전자기록물(2), 정보 접근(1), 보존(1), 보존관리(1), 저장소(1)
2009	137 (21개)	프라이버시(20), 정부기록물(18), 정보보안(18), 아카이브즈(17), 이메일(13), 정보기술(9), 이디스커버리(9), 전자의료기록(6), 사이버보안(5), 웹(4), 규제준수(3), 정보공개(3), 저작권(3), 기록정보관리(3), 검열(1), 디지털 보존(1), 정보접근(1), 재무(1), 디지털도서관(1), 소셜미디어(1)

프라이버시와 보안, 이디스커버리 등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다루어진 주제가 있는 반면, 아카이브즈, 자연친화(going green) 등 초반에 자주 다루어졌으나 어느 시점 이후 출현 빈도가 줄어든 주제도 존재하고, 클라우드, 모바일 기기 등 새롭게 부상한 주제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기간을 종합하여 50회 이상 다루어진 주제들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프라이버시는 매년 전체 기사 중 10% 이상의 비율로 다루어졌으며 2014년을 제외하고는 해당 연도에 게재된 전체 기사 중 다루어진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에 의해 일시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것이 아닌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4> 50회 이상 다루어진 주제의 연도별 추이

주제명	연도별 추이(출현 횟수와 전체 기사 중 비율)									
	총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프라이버시	155 (16%)	20 (15%)	23 (17%)	14 (11%)	23 (18%)	18 (16%)	14 (12%)	19 (17%)	24 (19%)	
정보보안	126 (13%)	18 (13%)	20 (15%)	11 (9%)	16 (12%)	15 (13%)	17 (15%)	12 (11%)	17 (14%)	
이디스커버리	91 (9%)	6 (4%)	6 (5%)	11 (9%)	16 (12%)	15 (13%)	20 (18%)	13 (12%)	15 (12%)	
사이버보안	80 (8%)	5 (4%)	2 (2%)	8 (6%)	12 (9%)	15 (13%)	18 (16%)	11 (10%)	9 (7%)	
정부기록물	74 (7%)	18 (13%)	17 (13%)	7 (6%)	5 (4%)	4 (3%)	-	8 (7%)	15 (12%)	
클라우드	61 (6%)	-	1 (1%)	6 (5%)	7 (5%)	18 (16%)	15 (13%)	6 (6%)	8 (6%)	



정보 보안 또한 2011년(9%)을 제외하고는 매년 10% 이상의 비율을 보이며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이처럼 꾸준히 높은 비율로 다루어진 것은 정보의 의도적 유출, 무지나 무관심으로 인한 망실 또는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 각 주 및 세계 각국에서 정보보안과 관련한 법규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나 모바일 기기의 업무 활용 등에 따라 정보 보안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해당 주제가 자주 다루어진 이유로 볼 수 있다.

이디스커버리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13년까지 해당 연도의 전체 기사 중 4~9%의 비율로 다루어지다가 2014년부터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4년부터는 그전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미국 내 판례와 정책결정에 대한 소식에 더해 해외사례에 대한 소개가 늘어났고 국경을 초월한 이디스커버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IM 2014 January/February; 2016 January/February, p. 8) 국제사회의 맥락에서 이디스커버리의 동향과 글로벌컴퍼니들이 미국의 이디스커버리 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록물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8, 17회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언급되는 비중이 낮아져 2013년과 2014년에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공공영역의 특성 상 이슈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줄어들었다고 보기 힘들고,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도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이러한 현상은 IM의 편집기조 또는 타 주제의 동향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는 2010년 처음으로 다루어진 이래 해마다 빈도가 높아져 2013년에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로 나타났고 2014년에도 13%의 높은 비율로 다루어졌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록 정보관리 영역에서 새롭게 부상한 주제이며 관심의 대상으로 급격히 주목받게 된 영역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 3.3 광고를 통해 살펴본 이슈의 흐름

광고는 업체의 의지와 역량에 의해 게재되는 것이므로 그 분포가 기록정보 관리 분야 이슈의 동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근거는 될 수 있다. IM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크게 기록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도구, 그리고 독자층인 유관분야 담당자들의 직무능력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광고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컨설팅으로 구분한 광고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와 구분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이 아닌 컨설팅 분야로 분류했을 뿐, 모든 경우 정보거버넌스 관리 등의 현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전산 플랫폼 및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업체의 광고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전산 프로그램과 함께 묶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결국 전자적 형태의 기록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표 5〉 IM 연도별 광고 분석결과

분야	연도별 광고 수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 직무개발	77	12	19	17	14	15
컨설팅	58	7	21	20	8	2
전산프로그램	41	8	14	5	8	6
대행 서비스	44	5	10	8	13	8
장비, 용품	13	1	-	3	5	4
기타	13	-	6	5	2	-
총 계	248	35	70	58	50	35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도 이러한 기록 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이 가장 큰 시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정보 보호나 이디스 커버리 등 관련제도에 부합하는 기록정보 관리 체계를 갖추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고객 정보나 사업 비밀 등이 유실 및 유출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자료의 적시 폐기를 통한 비용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한 광고의 내용에는 기록 정보관리 분야의 자격(Certified Records Manager: CRM, Certified Information Professional: CIP 등) 및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 소개와 해당분야의 컨퍼런스 홍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담당자들의 커리어 관리 또는 조직 내 위상에 있어서 관련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것임은 광고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광고에 포함된 학위과정 및 컨퍼런스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자기록관리, 사이버보안, 데이터 과학, 위기관리, 법무, 이디스커버리, 디지털 보존 등으로 이루어져 기록 정보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해당 분야 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로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행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록물 폐기와 보존 장소 제공, 스캐닝을 통한 기록의 전산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업체가 대부분임을 볼 때 여전히 종이 기록물의 처리 또한 과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비 광고의 경우에도 전산화를 위한 스캐너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 4. 주요 이슈와 시사점

### 4.1 정보거버넌스

정보거버넌스(Information Governance)를 간단히 설명하면 유관 분야 간의 협력을 통해 기록정보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라 할 수 있다. 정보 거버넌스의 기저에는 정보가 조직의 핵심 자산에 속한다는 인식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 또는 보호하지 못하면 해당 조직의 가치 유지와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리스크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컴퓨터의 하

드 디스크 뿐 아니라 이동식 저장장치, 파일 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저장소에 원하는 만큼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은 기록 정보의 식별과 관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과거와 같이 기록관리 담당자가 기록정보의 관리를 전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Blair, [n.d.], p. 7). 이러한 환경 하에서 과거의 분산적인 기록정보관리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합목적적 과정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보편성을 갖게 된 것이다.

정보거버넌스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즉 정보 및 기록관리 전문가를 비롯해 IT담당자, 업무 담당자, 법무와 규제준수 담당자, 보안 담당자, 프라이버시 담당자 등 정보를 직접 다루거나 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기록관리 담당자들은 기록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 방법론에 강점이 있지만 기술적인 요소나 프라이버시 등 법적 요소까지 전담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IT 전문가들은 정보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을 관리하지만 정보가 업무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이해하거나 업무 맥락에 유용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에는 취약하다. 업무 담당자들은 주어진 정보의 유용성을 업무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정보의 수요를 분명한 기준을 통해 설명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관 분야의 담당자들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으로써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의사결정과 업무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조직 경영에 수반되는 비용과 리스크의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Hagmann, 2013).

IM에서는 'UPFRONT'는 물론, 'FEATURES'나 'SPOTLIGHTS' 섹션을 통해 정보거버넌스의 동향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ARMA가 보급하고 있는 정보거버넌스 모델인 GARP(Generally Accepted Recordkeeping Principles)에 대한 설명을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다. GARP는 2009년 ARMA International이 개발한 정보거버넌스 원칙으로 기록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기업의 보직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채용한 프레임워크인데(설문원, 2015, p. 334) IM의 GARP시리즈는 'SPOTLIGHTS' 섹션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연재된 바 있다. IM은 이 시리즈를 통해 정보거버넌스의 구성요소와 요건, 원칙, 고려사항, 실제 적용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특기할 점은 이러한 정보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록관리 전문가의 기관 내 입지와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지가 깔려있다는 점이다. 기록관리가 정보거버넌스의 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전문분야로서 상대적으로 조직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IT나 법무분야 등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자리매김할 때 과거보다 더 조직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변과 인식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록관리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록관리의 문제를 정보관리라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타 분야와의 연계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보거버넌스에 대해 이루어진 국내 기록학계의 연구

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방법론과 전략에 대한 관심이 시급한 이유이다.

## 4.2 이디스커버리

증거개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소송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디스커버리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에 대한 증거개시를 말한다. 증거개시 자체는 1938년 연방민사소송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제도이나(변진석, 2012, p. 132) 2006년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증거개시의 표준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즉 ESI라는 개념이 명문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김승범, 2015, p. 18).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전자적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증거개시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전자환경에서 정보가 생산되고 활용, 보존되는 양상이 분산적이고 파편적이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전자증거개시 제도에서는 무엇보다 제출해야 할 정보의 소재 확인 문제, 즉 검색과 추출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 및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이디스커버리와 관련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데이터의 소재 파악을 꼽았다는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IM 2015 July/August, p. 7). 데이터의 양이 물리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근본적 원인이라 하겠지만(IM 2015 November/December, p. 13) 그만큼 기업들이 기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러한 배경에서 기록정보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프리디티브 코딩과 같은 검색방식의 도입 등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직접적인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디스커버리에 따르는 문제는 비단 해당국가의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디스커버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게도 미국 및 유럽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IM 2016 January/February, p. 8). 미국 등 이디스커버리가 제도화된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따른 예산 압박으로 인해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승범, 2015, p. 41). 미국에서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비용은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이러한 비용의 문제가 소송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IM 2014 May/June, p. 15). 하지만 결국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길이므로 정보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인 검색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미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디스커버리의 시의성을 생각할 때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기록학계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국내의 관련 연구는 주로 미국의 소송제도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법 제도 분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해당 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기록정보 관리와 검색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디스커버리에 대응하기 위한 기록관리 전략에 대해 살펴보거나(김승범, 2015; 김일아, 2016), 대응전략으로서 컴퓨터 지원 검색도구를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유준상, 2016)이 이루어진 것은 본격적인 후속연구를 위한 의미있는 초석이라 하겠다.

### 4.3 전자의료기록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EHR) 또한 IM 전반에 걸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이다. 미국에서는 2016년 한 기사에서 밝힌 통계에 의하면 96%의 병원에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사용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해당 기사에서는 2009년 제정된 경제적 임상 의료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HITECH)이 의료 관련 정보기술 확장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IM, 2016 January/February, p. 14). 미 후생성에서는 해당 법의 제정과 함께 259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도입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당근'과 2015년까지 전자의료기록 체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의료수가의 1%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자의료기록의 도입을 유도한 바 있다(Habib, 2010).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정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향상되면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의 활용이 보편화 된 것이다(IM 2013 November/December, p. 14).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기준 병원 급 구축률이 92.1%에 달할 정도로 대다수 병원에 전자의무

기록시스템이 보급된 상황이다(정용철, 2016.1.12).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를 전산화한 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이라는 관점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고, 기록의 형태나 관리방식이 표준화되지 못해 기관 간 공유가 요원한 문제가 있다. 반면 IM에서 전자의료기록을 다루는 관점은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치료 연혁을 종합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환자 본인 및 의료기관간에 공유함으로써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진료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주체간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주체의 접근 용이성 확대라는 측면으로 지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겪어 왔고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전자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고찰은 국내 기록관리학계에서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OAIS 참조모형(김장만, 2008), KS X ISO 15489(이은미, 김명, 임진희, 2012), ISO 15489(이주연, 김용, 김건, 2013) 등을 적용하여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의무기록의 관리체계 개선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고, 완결성 있는 병원 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병원 행정기록물의 관리실태를 분석하거나(김정환, 2013), 사례연구를 통해 병원 아카이브 구축을 모색하거나(오은정, 2014), 의무기록사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타진하는(문원식, 2015) 등 부분적이지만 거버넌스적 관점을 견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의 주류를 이루던 종이 의무기록과의 차이 분석이나 신뢰성 확보 문제 등에서 나아가 기록관리적 관점을 견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기록의 한 유형으로서 의무기록의 특성을 반영하는 관리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전자의무 기록과 관련한 지향이 전자의료기록(EHR)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인다.

#### 4.4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클라우드 컴퓨팅, [n.d.]).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virtualization)와 공유(sharing), 임대(tenancy) 등의 기술을 응용한 가상서버와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유동적 물리매체의 개념과 함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으며(전정훈, 2013, p. 1239) 기업들은 이를 통해 값비싼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거나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클라우드 컴퓨팅, [n.d.]). 뿐만 아니라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효과와 물리적 시설과 장비의 유지와 보안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IM 2015 July/August, p. 14).

IM의 2016년 기사에 의하면 미국 내 모든 산업분야에서 클라우드의 도입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규제산업분야에서도 지도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1,000명 이상 정부기관에서도 53%의 도입

율을 보이고 있어 클라우드의 확장이 민간부분에 한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IM 2016 March/April, p. 10). 2020년에는 미국 민간분야 클라우드 업계의 규모가 2천3백6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도 있을 만큼(IM 2016 November/December, p. 6) 성장세가 뚜렷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시장은 그 규모가 2015년에 전년 5,239억원 대비 46.3% 증가한 7,664억원으로 성장하였을 만큼(SK 주식회사, 2016) 급격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자치부에 클라우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거나(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2015) 클라우드용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등(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 2016)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용의 확대와 더불어 문제점을 수반하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그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보안에 대한 취약성으로, 불법적 접근에 따른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가 존재한다. 2013년 기사에 의하면 미국 내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고(IM 2013 November/December, p. 18), 2016년에는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 유출 또는 유실, 개인정보의 보호, 계정 해킹 등에 대한 우려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조사 결과도 있었다(IM 2016 July/August, p. 17). 또한

해당 기술이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손상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언급한 바와 같이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전자정보 보존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용 서비스의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어 시스템 기반의 기록정보 관리 체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이생동(2014), 임지훈 외(2014)의 연구와 같이 기록관리적 관점에서 체계를 파악하고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며 관련분야와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취약한 부분을 극복하고 장점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RMA International의 기관지인 Information Management지를 분석하여 기록 정보관리 분야의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해당 간행물의 기사 총 987개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할 때 기록정보 생산과 관리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고려해야할 제도적 요건들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기록정보관리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

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는 우선 국내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체계적인 기록정보의 관리가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고, 나아가 변화하는 시장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기록정보 체계에 대한 고려가 새로운 도전이고 불필요한 지출 요소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보의 부재, 손실이나 유출이 초래할 경제적 손실이나 이디스커버리와 같이 국제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제도적 요소에 대한 대비 부재가 가져올 결과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IM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또한 국내 기록관리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새로운 기록정보 생산 및 관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간의 협력에 기초한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록정보의 관리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만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음은 명백한데 이러한 낯선 변화가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나아가 전문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자질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임이 분명하다.

## 참 고 문 헌

- 강순애 (2013). 기록관리의 역사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 -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41-65.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041>
- 김동환 (2012, 9. 6). 코오롱 1조원 벌금맞은 진짜 이유는? 오마이뉴스. Retrieved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562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5622)
- 김승범 (2015). 기록관리의 기회와 위협요인으로서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김일아 (2016).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에 대응하는 미국 기업의 기록관리 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김장만 (2008). 병원 의무기록 보존실태 및 관리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정환 (2013). 병원기록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문원식 (2015). 병원 의무기록사와 기록연구사의 협력적 기록관리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박희진 (2014). Archivaria 리뷰를 통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99-125.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 변진석 (2012). 미국 민사소송에서 증거개시의 역할과 한계, 한국에 도입 가능성. 미국헌법연구, 23(3), 129-162.
-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3-232.
- 설문원 (2015). 기업 소송에 대비한 정보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 세도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325-354.
- 손혜인, 남영준 (2016). 기록관리학 분야 국내 학술지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1), 85-110. <https://doi.org/10.3743/kosim.2016.33.1.085>
- 오은정 (2014). 병원기록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유준상 (2016).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대응을 위한 기업기록 검색도구 적용방안 연구 - 'Predictive Coding'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생동 (2014).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한 기록관리시스템 체계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은미, 김명, 임진희 (2012). 의무기록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KS X ISO 15489표준의 Y병원 적용

-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9(3), 257-285. <https://doi.org/10.3743/kosim.2012.29.3.257>
- 이주연, 김용, 김건 (2013). 대형 대학병원의 의무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107-134.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1.107>
- 임지훈, 김은총, 방기영, 이유진, 김용 (2014).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53-179.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3.153>
- 전정훈 (2013).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의 취약성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3(6), 1239-1246.
- 정용철 (2016. 1. 12). 의료 빅데이터 선결과제 '표준화' 쟁점. 전자신문. Retrieved from <http://www.etnews.com/20160112000102>
- 클라우드 컴퓨팅 (n.d.). 네이버 지식백과.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560&cid=42171&categoryId=42183>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0).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2015). 클라우드 기반의 온-나라 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세종: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 (2016). 클라우드용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전환 계획(안). 세종: 행정자치부.
- SK 주식회사 (2016).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현황. Retrieved from <http://skccblog.tistory.com/2922>
- SK 하이닉스 (2012). SK 하이닉스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 환송심 결정 환영 - 램버스의 악의적인 불법 증거과기 행위 인정. SK 하이닉스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www.skhyunix.com/ko/pr\\_room/news-data-view.jsp?search.seq=2124&search.gubun=0004](http://www.skhyunix.com/ko/pr_room/news-data-view.jsp?search.seq=2124&search.gubun=0004)
- ARMA International (2016a). Who we are. Retrieved from <http://www.arma.org/who-we-are>
- ARMA International (2016b). Conferences. Retrieved from <http://www.arma.org/r1/conferences>
- Austin, D. (2012). eDiscovery case law: Apple wins 1.05 billion dollar verdict against Samsung. eDiscovery Daily blog. Retrieved from <http://www.ediscoverydaily.com/2012/08/ediscovery-case-law-apple-wins-105-billion-dollar-verdict-against-samsung.html>
- Blair, B. T. [n.d.]. Executive briefs. Information governance executive briefing book. Retrieved from [http://mimage.opentext.com/alt\\_content/binary/pdf/Information-Governance-Executive-Brief-Book-OpenText.pdf](http://mimage.opentext.com/alt_content/binary/pdf/Information-Governance-Executive-Brief-Book-OpenText.pdf)
- Gable, J. (1999, January). Moving forward in 1999.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33(1), 2-3.
- Habib, J. L. (2010). EHRs, meaningful use, and a model EMR. Drug Benefit Trends, 22(4).
- Hagmann, Juerg (2013). Information governance-beyond the buzz. Records Management Journal,

23(3), 228-240. <https://doi.org/10.1108/rmj-04-2013-0008>

Wiler, V. (2012). 2012년 7월 12일 이메일을 통한 문답

Wiler, V. (2016). 2016년 12월 7일 이메일을 통한 문답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yun, Jin-Suk (2012). US civil litigation and discovery: It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23(3), 129-162.
- Jeon, Jeong-Hoon (2013). A study on the vulnerability of the cloud computing securit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23(6), 1239-1246.
- Kang, Soon-Ae (2013).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3(3), 41-65.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041>
- Kim, Il-a (2016). The trends analysis on the American business records management responding to e-discover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of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 Kim, Jang-Man (2008).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medical records manage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Industry of Joongbu University, Department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 Kim, Jeong-Hwan (2013). A study of the effective management method of hospital archiv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Kim, Seng-Bom (2015). An analysis on e-discovery system as opportunities and threats for record manage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of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 Lee, Eun-Mi, Kim, Myeong, & Yim, Jin-Hee (2012).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medical records management: Focused on applying the KS X ISO 15489 to the Y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257-285. <https://doi.org/10.3743/kosim.2012.29.3.257>
- Lim, Ji-Hoon, Kim, Eun-Chong, Bang, Ki-Young, Lee, Yu-Jin, & Kim, Yong (2014). An application method study on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s based on cloud computing.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4(3), 153-179.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3.153>

- Lee, Ju-Yeon, Kim, Yong, & Kim Geon (2013). A study on the analysis and methods to improve the medical records management in a large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3(1), 107-134.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1.107>
- Moon, Won-Shik (2015). Cooperative record management of hospital record administrations and record manag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 Oh, Eun-Jung (2014). A study on systematical management plan of the hospital records-Focused 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of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 Park, Hee-Jin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 management in North America through the review of Archivari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4(4), 99-125.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 Seol, Moon-Won (2012).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records and archives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2(3), 203-232.
- Seol, Moon-Won (2015). Building corporate information governance to prepare for litigation - Practical implications of Sedona conference principles of information governan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325-354.
- Sohn, Hye-In, & Nam, Young-Joon (2016).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th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an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1), 85-110. <https://doi.org/10.3743/kosim.2016.33.1.085>
- Yi, Saeng-Dong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loud computing-based records management system.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of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 Yu, Jun-Sang (2016). A study on application of e-discovery for business record search tool - focusing on the 'predictive codi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of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